2015학년도 서울교육대학교 수시모집 면접 문제

[교직 인성]

【평가관점】

예비 초등교사로서 지녀야 할 사명감, 교직에 대한 이해, 사회공헌 의지, 교사로서의 잠재력 등을 통합적으로 평가한다.

※ 다음 두 학생의 대화를 1분 정도 읽고 면접관의 질문에 답하시오.

A: 나는 장래에 군인이 되고 싶어. 너는?

B: 나는 이민 갈 거야.

A: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살아야지 왜 이민을 가?

B: 내가 뭐 이 나라가 좋아서 여기서 태어났니? 그리고 우리나라에 좋은 게 뭐가 있니? 입시지옥을 거쳐 대학 가면 취업난. 취업하면 또 과로를 강요당하고. 게다가 복지도 부실하고…….

A: 그건 네가 잘 모르니까 하는 소리야.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 5천 년의 역사에 빛나는…….

B: 5천 년의 역사라지만 우리 조상들이 성취한 게 뭐가 있지? 다른 나라에서는 과학혁명, 산업혁명을 하고 민주주의를 이룩하는 동안에 말야.

A: 그렇게 생각하면 노력해서 더 나아지게 해야지! 그게 국민의 도리야! 혼자만 잘 살겠다고 떠나는 건 배신이야!

B: 나라라는 게 뭐니? 개인의 행복을 위해 있는 거잖아? 그런데 왜 개인이 행복을 찾아 떠나는 게 배신이지?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

질문 단계

[질문 1] : A, B 학생의 주장에서 지나치다고 여겨지는 점을 말해 보시오.

[질문 2] : 본인이 교사라면 A, B 학생을 각각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말해 보시오.

관련 내용

요즘 청소년들의 국가관이나 사회관은 상당히 개인 중심적이고, '애국'을 '국수주의'로 혐오하는 경향이 짙다. 그것을 기성세대의 입장에서 비판할 수만은 없다. 그러나 교사가 지나치게 국가에 회의적이거나, 아예 공동체 문제에 관심이 없다면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이 문제를 통해 수험생의 국가관, 공동체 의식을 살펴보는 한편, 그 문제를 접근하는 태도에서 관용과 공감, 배려에 관한 인성을 살펴본다. 위 지문에서 A와 B는 자신의 가치관을 상대에게 강요하려는 태도가 뚜렷하며, 다른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에 대한 공감이나 배려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질문 1] 관련

A, B 중 어느 학생의 주장 내용(국가관)에 수험생이 공감하는지를 파악한다. '이 경우에는 A가 정답이겠지'라 여겨 평소 생각과는 무관하게 A를 옹호하는 입장을 나타낼 수가 있다. 그럴 경우 A의 주장에 대한 표현이 피상적이거나 'B는 태도나 말투가 문제'라 하여 내용상의 문제점 지적을 소홀히 할 수 있다. 이 점을 면접자가 간파해야 한다. A, B 어느 한쪽의 문제점만을 지적할 경우 '다른 경우에는 문제가 전혀 없는가?' 등으로 추가 질문을 할 수 있다.

[질문 2] 관련

이 질문에서 A, B 모두에게 문제점이 있음이 인지되는데, 여기서는 내용적인 면보다 태도적인 면에서 지도가 이뤄져야 한다고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람이 너무 이기적이면 안 된다고 지도 한다' '개인이 국가의 부속품은 아니지 않느냐고 지도한다' 등으로 내용의 선악을 교사가 선택해서 학생에게 강요하겠다는 접근은 문제가 있다.

주안점

- **우 수 :** 질문 1에서 공동체에 대한 생각이 깊으며, 2에서 적절한 지도 방식을 지향할 때
- **보 통 :** 질문 1과 2의 답변이 일반적이고 평이한 수준인 경우
- **미 흡 :** 질문 1과 2의 답변이 타당성이 부족하고, 상투적인 논리에 그치는 경우